헤럴드경제

경기도, 스마트폰 앱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개발

2020-03-05 08:02

경기도 북부청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평화누리길'에 대한 이용자 종주인증과 길안내 서비스가 시작된다.

경기도는 어플리케이션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를 개발, 올해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는 매년 40여만명이 평화누리길을 찾고 있는 만큼, 탐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가 트레킹 인증 전문기관과 협력해 개발했다.

어플리케이션은 평화누리길 12개 코스에 대한 정보는 물론,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현재 어디를 걷고 있는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경로 이탈 시 '알람'을 울려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다.

특히 이번 어플리케이션은 평화누리길 종주자들을 위한 '전자인증(스탬프)' 서비스가 주목할 만하다.

그간 탐방객들은 종이 스탬프북인 '평화누리길 패스포트'를 들고 평화누리길을 걸으며 각 코스 시·종점에 비치된 스탬프 도장을 일일이 찍고, 코스별 인증사진을 평화누리길 관리자에게 보내야만 '종주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어플리케이션은 ICT 기술을 바탕으로 코스 내 반경 50m 내에 위치해 있을 때만 기록이 되고, 각 코스의 70% 이상 완주했을 경우에 '전자스탬프'가 발급돼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종주 인증이 가능하다.

평화누리길 12개 코스 189km의 '전자 스탬프'를 모두 발급받으면, 간단한 설문조사와 함께 관련 정보가 평화누리길 관리자에게 전달, 이를 바탕으로 종주인증서와 소정의 종주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12개 코스 완주자는 발급된 전자스탬프를 초기화해 다시 평화누리길을 종주할 수 있다. 재차 완주에 성공하면 '명예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어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평화누리길 스탬프투어'로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향후 불편사항을 지속 수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음성으로 길을 안내하는 방식과 주변 관광지를 소개하는 기능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2010년 5월 8일 개장한 '평화누리길'은 김포·파주·고양·연천 4개 시·군 12개 코스로 구성된 총 189km의 대한민국 최북단 도보 여행길로, 해안철책, 한강, 임진강, 역사·문화 관광지 등 여러 명소들이 산재되어 있다.

도는 그간 문화·관광자원 연계, 탐방객 안전 확보, 걷기 행사 개최 등 이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결과, 연간 40여만명이 평화누리길을 찾고 있으며, 12개 코스 종주자수가 500여명에 이른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DMZ 비무장지대(dmz.gg.go.kr) 또는 DMZ즐겨찾기 홈페이지 (dmz.ggtour.or.kr)를 참고 하거나 평화누리길 관리자(031-956-8310)에게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인쇄하기 창닫기

Copyright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위클리오늘 weeklytoday.com

HOME 전국 경기 북부

파주시 DMZ 대성동마을, 코로나19 극복 위해 성금 기부

박선미 기자 승인 2020.03.04 10:20

▲ 파주시청

[경기 북부 위클리오늘=박선미 기자] 파주시 최북단 DMZ 비무장지대의 유일한 민간인 거주 마을인 대성동 마을 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써달라며 파주시에 성금을 전달했다.

지난 2일 대성동마을 김동구 이장과 김태유 노인회장은 파주시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을 쏟고 계시는 분들과 취약계층을 위해 써 달라며 200만원을 전달했다.

김동구 이장은 " 지역 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과 방역 의료진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 다 함께 힘을 모아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해내길 바란다 " 고 말했다.

해당 성금은 파주 지역 취약계층의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용품 구입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을 쏟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박선미 기자 etc@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dongA.com

2020-03-04 11:12:00 편집

프린트 닫기

통일부, 김여정 靑조롱에 "언급할 사항 없어…서로 존중해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청와대를 향해 조롱을 쏟아낸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4일 "따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담화'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다만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이 상호 존중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담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는지, '김여정 위상 강화'로 해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분석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북한은 전날 밤 10시30분경 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청와대가 북한의 합동타격훈련에 유감을 표한 것에 대한 반발과 조롱이 담겼다.

그는 청와대를 향해 '주제넘은 처사', '저능한 사고', ' 세 살 난 아이', '완벽한 바보'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